

Contents

- 04 제16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 서구의회의장 강성구
- 06 루원시티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석면처리대책 촉구 결의안
- 08 의원기고문 |
 - “드림의 미학”, 친환경적인 개발!! ... • 구재용 의원
 - 4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그녀의 삶이 참으로 경이롭다 • 송영우 의원
 - 인천시, 2014년 이후를 준비해야 • 홍순목 의원
 - 술취한 꼬끼리를 길들이며... • 전원기 의원
- 16 구정질문 및 답변
- 20 제16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결과
- 21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및 예방법
- 22 공무원 한마당
- 24 구민 한마디
- 2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9 기사로 보는 서구의회
- 32 제5대 제2기 의원현황
- 34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
- 35 투고안내, 의회방청안내, 청원 및 진정

● 발행일 2009년 9월 00일(제25호)
 ● 발행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강성구 ● 편집인 서구 의회사무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전화 032)560-4507~8, 팩스 032)561-4336

• 본지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구의회보는 인터넷(<http://assembly.seo.incheon.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서구, 활기찬 서구, 희망을 주는 미래의 밝은 서구를 위해 서구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장 강성구

존경하는 40만 구민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언론에서 들은바와 같이 15년 만에 찾아오는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60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0만 구민의 대변자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기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40만 구민의 안정된 삶의 보장과 동북아 중심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도 경제가 긴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나마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져 올수 있게 된 것은 구민들께서 『하나의 힘』을 모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 할 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만 잘 한다고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아직도 국·내외적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제난 극복에 온 힘을 다하여 주신다면은 우리 경제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도 푸른 도시, 활기찬 도시, 희망을 위한 미래의 『밝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랑하는 40만 구민여러분께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저 탄소 녹색성장 추진운동에 온 힘을 기울여『경제난 극복』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및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5대 의원 임기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5대 임기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결의안, 건의안, 조례안 등 많은 의정활동을 주민과 함께 펼쳐 왔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신축될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가장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경기장 주변의 선수촌, 미디어촌 등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체육 인프라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도 구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금번 제1차 정례회에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의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 속에 올바르게 추진되고 집행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원시티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석면처리대책 촉구 결의안

인천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200여 곳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41개 지역을 추가로 구역 지정하였다. 또한 가정 뉴타운사업에 이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천역, 동인천역, 주안역 뉴타운사업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 서구에도 가정 뉴타운을 비롯하여 13곳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곳곳에서 뉴타운 조성과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철거작업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서구에서도 2009.10월부터 루원시티 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가 시작되고 2010년부터는 검단1 신도시를 위한 보상과 함께 신도시 예정 지구 내 자연부락의 가옥과 공장 등의 철거가 시작될 것이다.

최근 경인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정 뉴타운 철거예정지역에 처리해야 할 석면의 양은 약 600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600톤이라는 규모가 과연 정확하게 파악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를 2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까지도 석면을 처리하기 위한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석면 피해의 공포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면은 그 처리비용이 일반폐기물의 30배에 달하고 있고 처리절차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종합청사 철거에서도 석면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한 예에서 보더라도 관급공사에서조차도 석면 처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에 약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되고 석면광산 주변에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석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석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 첨부가 올해부터 의무화되고, 건축물 석면 해체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 배출기

준도 마련돼 2012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선(先) 석면 제거와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어 놓을 정도로 석면은 우리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 요소이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석면이 일반 건설폐기물과 같이 처리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인천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곳이 있으며 모두 오류동, 왕길동, 백성동 등 서구에 위치해 있다. 석면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된다면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의 형태로 가정동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1차 피해를 주게 될 것이지만, 더 큰 피해는 그 다음부터다. 서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적치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인천광역시와 주택공사에서 철저한 석면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청은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업체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초에 정부 종합대책에서 언급되어졌으나 시기가 미 도래한 규정에 대해

서도 소급 적용하여 더욱 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토록 하고, 건축물 석면 해체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조치를 실시토록 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 배출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선(先) 석면 제거와 후(後) 건축물 철거 순으로 작업을 진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는 루원씨티 개발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석면처리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정확한 석면양을 파악하고 처리대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2. 인천지방노동청은 인천시 내의 모든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철저히 분리되어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3.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은 서구관내에 밀집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적치된 재활용 골재의 비산먼지화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정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감리제도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

2009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구재용 의원

“느림의 미학”, 친환경적인 개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것을 보면 계절은 이미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나 보다. 이른 아침 서곶근린공원 산을 오르면 한적하게 산길을 걸어볼 수 있어 좋다. 산길을 오르다 간혹 내려오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기분도 상쾌하다.

한참을 오르면 헬기장이 나오고 초소에 이르면 한눈에 내려 다 보이는 서구, 희뿌영계 보이지만 넓은 면적에 아파트 신축현장의 대형크레인을 보면 꿈틀거리고 있는 도시를 느낄 수 있다. 이번에는 초소에서 계양산 방향으로 내려오니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징맹이 고개가 나온다. 통로 입구에는 자랑스러운 듯 징맹이 고개 생태통로라고 적힌 상징물이 오만하게 서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환경의 파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 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서구와 계양을 연결하는 경명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산의 맥을 단절시켰다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일백십구억오천이백만원)하여 생태통로를 복원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니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당초 사업당시 터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생태통로를 복원한다고 이 야단법석을 떨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쉬운 일이다.

지금의 계산동과 공촌동 사이에 있는 이 고개는 ‘고려 말 충렬왕이 매 사냥을 즐겨 매방을 설치하고 다섯 차례나 와서 좋은 매를 징매하였다.’ 하여 징맹이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예전부터 도둑들이 근거지를 틀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금품을 빼앗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안전하게 넘어가려면 천명은 모여야 한다.’ 해서 천명고개라고도 하였다. 또한, 한때 임궽정도 이 징맹이 고개에서 부하들을 훈련시켰다고 한다.

터널위로 올라가 보니 징맹이 고개에 대한 표지판이 보인다. 동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등산객이 다니는 통로를 만들어 통행을 제한하는 듯싶다. 도로개설 사업 시는 동물들의 이동이 차단되리라는 생각을 못해서일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여 만든 생태통로이지만 아무리 봐도 동물들이 이동통로로 사용할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하다.

언젠가는 지나다 보니 큰 현수막이 걸려있



었다.

“동물들아~! 어때? 고맙지?”

만약 동물들이 글을 볼 줄 알아 그 글을 읽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비웃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옆에는 인천광역시통합예비군교장 부지인데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벌써 예비군 교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없어서는 안 되는 예비군 교장이지만 인천시의 교장이 다 이곳으로 와야 하는 건지? 또한 엄청나게 많은 자연을 훼손해가며 교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인지도 의문이다. 훗날 자연훼손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징명이 고개 생태통로를 지나오며 뒤를 돌아보니 역시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 통로를 연결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또 누구인가?

언제부터인가 4대강을 정비한다고 언론과 매스컴이 야단법석이다.

4대강이 온통 콘크리트벽으로 가득 채워지면 지금의 징명이 고개 생태통로처럼 보기 싫

은 흉물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한곳만 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4대강을 정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4대강 정비의 속도전과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쏟아지는 우려도 생각하여야 하는데 오로지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간 제기된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훗날 다시 복원하려면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우리 후손들이 부담하여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빨리 빨리를 외치며 무엇인가에 쫓기듯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빨리 건설하고, 최단 시간에 마쳐야 하며, 재임기간 내에 결과(실적)를 내리는 문화에 젖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다. 천천히,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며 진정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 볼 때이다.



송영우 의원

“4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그녀의 삶이 참으로 경이롭다”

고(故)육영수(大德華)女史 제35週忌 추모제가 지난 9일에 이어 15일 국립묘지에서 박근혜 전 대표님과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 도문 큰스님, 일면 큰스님, 무궁사 대한스님, 허태열 최고위원, 노철래 원내대표, 윤상현 대변인, 유정복 국회의원, 이규택 친박대표, 박희도 대한민국의기독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과 회원, 그리고 송창달 그린비전코리아회장 및 나를 비롯한 임원과 회원, 김용희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승모회장, 근혜사랑, 호박, 박사모 회원 등 수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무궁사 주최로 개최된 지난 9일 추모제는 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儀式) 중 매우 중요한 의식인 불·보살님께 공양(供養)을 올리는 불공(佛供)이라 할 수 있는 육법공양(六法供養)과 염불로 시작됐다.

그리고 현향과 현화에 이어 유족인사로 나온 박근영 이사장은 어머니를 회상하며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일화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청와대 접견실이 여러 곳에 있는 반면, 꽃 화분은 항상 한 개였습니다. 접견객이 방문하는 접견실에 그 꽃 향아리를 직접 옮겨 다니셨지요, 심지어는 물을 아끼시려고 집무실이나 침실 화장실 물통에는 벽돌 2장을 넣어 두시는가 하면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잠시 애도의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로 식장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그것을 인지한 박근영 이사장은 다소 환

한 웃음으로 다음 인사말을 이어갔다.

그렇다! 육 여사가 서거한지 35년이 됐건만 왜 우리들은

아직까지 육영수 여사님을 그리워할까. 왜 육영수 여사님을 잊지 못할까. 왜 육영수 여사님을 생각하면 힘이 쏠릴까. 왜 우리들은 육영수 여사님을 가슴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할까. 벌써 34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듯 많은 참배객들이 추모식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한 것은 무엇일까. 35년 전에 이 땅을 떠나보내신 육 여사님의 추모 의식에 말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셨던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라는 한 참배객의 작은 말이 바람을 타고 주위 참배객들에게 전파되자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에 나섰다. 그렇다. 모든 국민들 가슴속에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을 지펴주었던 자애로운 어머니와도 같으신 분. 그런 육 여사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도 사람들 가슴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고, 그 그리움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이다.

언제였던가? 인천불교총연합회장이시기도 한 선일 큰스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신 적이 있었다. 지고지순의 삶을 풍경화처럼 아름답게 펼치고 간 육영수 여사의 49년간의 생을 조명한 책 ‘자비의향기 육영수’가 그것이다.



한 나라의 국모이기 이전, 한 인간이기도 했던 육영수 여사님의 일생을 남지심 작가님께서 되짚어본 도서다. 250여권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책으로 그린비전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지금도 잘 읽고 있다. 그리고 여사님의 생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38살이라는 젊디젊은 나이에 청와대 안주인으로서 소임을 시작해 12년간 대부분의 국민들 가슴 속에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간 육영수, 가난하고 힘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고 간 육영수.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면서도 애뜻한 그리움으로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영부인 육영수 여사님의 생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도서다.

이 책에서도 많은 일화를 기록해 두고 있지만 육 여사님께서서는 험벗고 굶주린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의욕을 잃은 젊은이들에게는 직접 일거리를 만들어 살아가야 할 힘을 실어 주신분이셨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각종 사회활동, 육영사업, 적십자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양지회(陽地會) 활동과 각 시·도에 여성회관을 건립, 여성의 사회 참여를 선도하셨다. 이 밖에도 자연보호운동과 식생활개선, 의류혁신, 문화사업의 지원, 자원봉사활동, 양지진료소 개설, 불우이웃돕기, 윤락여성의 자활운동, 양로원, 고아원 위문, 전몰군경미망인 자활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 오셨다.

특히 나병환자들을 위한 구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경로효친사상을 불어놓는데 힘썼고 어린이 대공원 조성 및 1969년 4월 14일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회관을 건립하고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 '꿈나무' 등을 발간했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는 직업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정수직업훈련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 걸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셨다. 그러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제29주년 기념식장(국립극장)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의 흉탄에 맞아 사망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35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영부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저서에서 "만일 육영수 여사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셨다. "육영수 국모님께서서는 5천년의 찌든 가난과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땅에서 주저앉은 우리 국민들에게 '열심히 해 보세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시면서 국민을 일으켜 세우시고 길을 인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육영수 대덕화 보살님과 같은 국모를 다시 모시지 못한 아쉬움에 더 그리워짐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박희도 대한민국의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의 추모사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귀에 맴돈다.

그래서인지 남지심 작가님께서서는 육영수 여사님의 생을 다루는 글을 쓰시면서 한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한 여성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한 여성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육영수라는 한 여인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했다. 해서, 4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그녀의 삶이 참으로 경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혼탁한 세상에 육영수가 뿜어내는 향기가 독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생의 이정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쁘겠다는 글로 이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자문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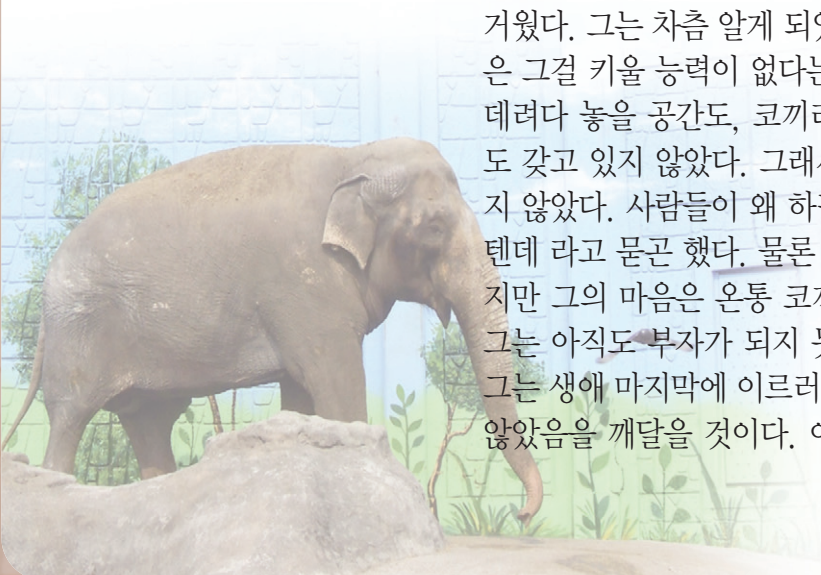
전원기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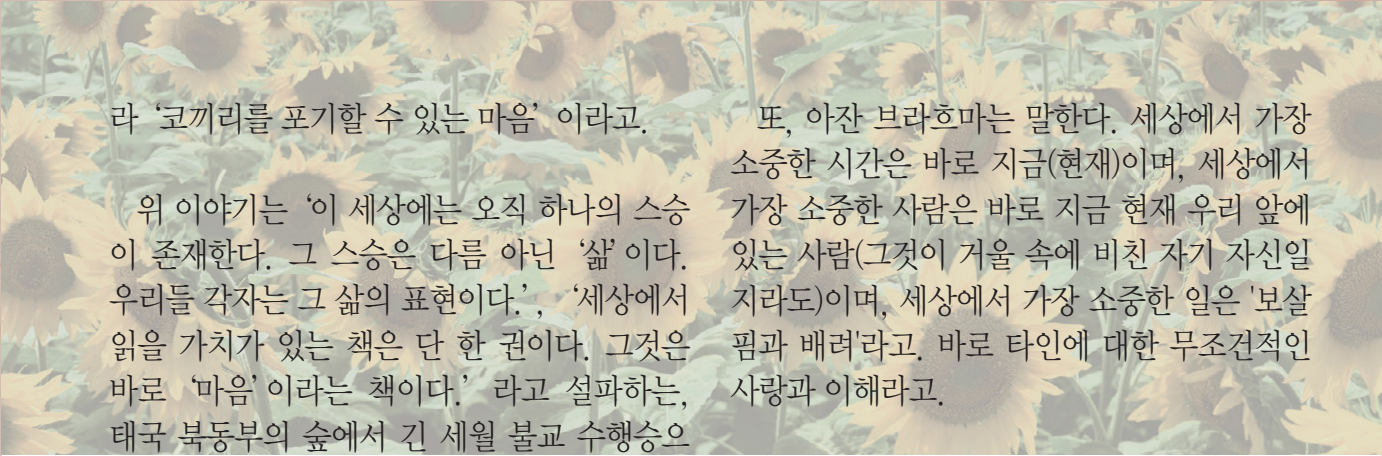
술취한 코끼리를 길들이며...

요사이 새벽 공기가 제법 차다. 하늘도 푸르다. 높아 보이기까지 한다. 계절로 가는 하늘에 가을이 들어서고 있다. 들녘의 벼들이 누런빛을 띄면서 농군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계절이다. 농부들 뿐 만 아니라, 몇 달 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성과를 위해 또 한 해 목표했던 것들의 달성을 위해, 가정이나 산업현장, 학업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모두 제각각 분주하다. 실로 영그는 계절, 수확의 계절에 들어서고 있는 요즘이다.

가을은 이렇듯 영금과 수확의 계절이자 성찰과 성숙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봄, 여름의 비바람과 불볕더위 등 시련을 이겨낸 성찰과 성숙의 결과물이 풍성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람 또한 이리하다. 세월이 가고 그 세월 속에 보고 겪고 느꼈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속 술취한 코끼리를 잘 길들이 냈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져 있을 것이다.

코끼리가 너무 좋아서 코끼리 한 마리를 갖는 것이 평생소원인 한 사람이 있었다. 자나 깨나 코끼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뜨거웠다. 그는 차츰 알게 되었다. 당장 코끼리를 갖는다 해도 자신은 그걸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부자가 아니어서 그것을 데려다 놓을 공간도, 코끼리를 배불리 먹일 만큼의 사료를 살돈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하필 코끼리냐고, 개나 고양이라면 쉬울 텐데 라고 묻곤 했다. 물론 그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코끼리한테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했고 코끼리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결국 그 코끼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





라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라고.

위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스승이 존재한다. 그 스승은 다름 아닌 ‘삶’이다. 우리들 각자는 그 삶의 표현이다.’, ‘세상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단 한 권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책이다.’ 라고 설파하는, 태국 북동부의 숲에서 긴 세월 불교 수행승으로 살아온 아잔 브라흐마의 ‘몸·마음·영혼을 위한 안내서’라는 부제가 붙은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는 ‘진정한 만족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코끼리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한다.

아잔 브라흐마는 다스려지지 않은 인간의 마음을 술취한 코끼리에 비유한다. “마음속 술취한 코끼리는 매우 위험하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명상과 깨어 있음의 발췌로 마음속 코끼리를 붙들어 매는 순간, 문제는 사라진다.” 는 것을 다음 이야기를 통해 전해준다.

‘시장을 지나갈 때 코끼리는 쉴 새 없이 코를 흔들며 진열된 물건을 쓰러뜨리거나 아무거나 집어서 입 안으로 가져간다. 이 때 노련한 조련사는 코끼리의 코에 대나무 막대기 하나를 쥐어 준다. 막대기를 받아 쥔 코끼리는 그것을 꼭 잡고 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 역시 이런저런 생각으로 늘 움직이지만 참다운 자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또, 아잔 브라흐마는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현재)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사람(그것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일 지라도)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보살핌과 배려’라고. 바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라고.

올 한해 우리는 우리 삶에 큰 깨달음을 주신 이들을 안타까움 속에 보내야 했다. 이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늘 깨어있는 시민이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어느 한 순간도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적이 없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놓아드려야만 했다.

어쩌면 그 분들의 삶은 아잔 브라흐마가 말한 욕망의 자유가 아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실천해 내신, 깨어 있음의 그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욕심에 갇혀 있지 않고 낮은 곳의 이웃과 소외된 자와 서민의 편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를 살았고, 타인에게 감사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셨던,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들이셨음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도 그 분들처럼 자기 마음속의 술취한 코끼리를 잘 길들이어서 깨어 있음으로 소중한 지금을 놓치지 않고 따뜻함과 배려로 이웃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기(史記)에 인정승천(人定勝天)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하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그 뜻을 이뤄낸다는 의미다. 늘 깨어 있음으로 인정승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가을을 맞이하고 싶다.



홍순목 의원

인천시, 2014년 이후를 준비해야

2014년. 어느 해 보다도 2014년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2014년을 전후 하여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많은 사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는 해이며 인천시의 발전의 분수령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기화로 하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신축 등 많은 체육시설들과 도시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2014년 이전에 인천시에 있어 두 번째 철도인 도시철도 2호선이 동시 개통되며, 수도권외의 관광명소로서 아라뱃길이 완공되고, 청라 경제자유구역은 국제금융단지로, 검단신도시는 차별화된 기능성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인천시민들과 서구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상의 협조를 받지 못해 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권 어느 곳도 인천시민 만큼 불편을 인내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나마 현재 계획된 대로 진행된다면 인천시민에 있어서 그동안 인내하고 참아온 것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민들이 2014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인천시에 있다.

2014년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로 인천시는 2014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국가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2014년까지는 어찌되었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그 이후까지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천시의 내부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불과 5년 후가 될 2014년 이후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정책결정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해야 한다. 선진국 시장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근거한 경제성장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와 광물 가격이 고가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부상하고 효율성에 근거한 경영전략의 전면 변경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국내적으로도 행정구역개편이 갑자기 제기되는 등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신화로 자주 회자되던 두바이의 기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신중 플루는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인류의 생활패턴에 변화를 줄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의 성공법칙이 내일에도 적용되리라고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래의 흐름을 시시각각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궤도를 신속하게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책임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있다.

세 번째로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바로서 우후죽순처럼 자고 나면 개발계획이 발표되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어찌면 포퓰리즘을 일면 좇을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제도의 대표적인 폐해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뉴타운의 지정이 수도권 최대 선거공약사항이 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환영하는 것 같지만, 또한 모든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무겁게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전원기 의원

1. 왕길동 수도권 매립지 정문에 적치된 건설 폐기물 1,500만톤 처리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처리계획 및 민원해결 방안은?

왕길동 적치골재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현재 골재가 적치된 토지는 소유주 9명이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어 토지관리자가 명확치 않고, 이해당사자간에 “적재물 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과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적치골재 처리방안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적치물 처리 책임을 묻는 “적재물 취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의 1심 판결이 적치행위자에게 처리토록 선고됨에 따라 처리책임자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치골재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2. GEC 영어마을의 문제점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운영방안은?

영어마을의 현 문제점은 2006년 개원당시 투자대비 손익분기점 수강생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특구운영위원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교육의 보완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어마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국·시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의회와의 협력방안은?

우리 서구는 현재 대형 국·시책사업, 각종 개발사업 등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음.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항과 민원사항이나 주민의 의견 수렴 시에는 구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한편, 구정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역할과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박 구 의원

1.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민간담회 개최와 쓰레기 문제, 치안 문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의 여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그동안 보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견과 보상 등을 중재하여 현재 약 85%의 보상이 완료되었음. 앞으로도 보상협의회를 주민들의 의사전달 창구 또는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로 운영하고 자 함. 그리고 쓰레기, 치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계기관과 치안, 쓰레기, 화재 그리고 보건 문제 등에 대하여 수차례 실무협의를 한 바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경비인원을 활용한 상시 순찰 시행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취약지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재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 10명, 희망근로자 120명을 고정시켜 뒷골목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매일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대한주택공사에서 7월 6일부터 9월까지 수시 연막소독과 세대별 소독을 3회 이상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화재, 방범순찰, 방역활동 등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홍 순 목 의원

1. 검단산업단지, 경인아라뱃길, 매립지 등 대형공사장 주변 환경관리, 특히 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은?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사 관계자의 교육과 함께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장에는 펜스 및 방진망, 세륜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공사장 안에서의 선 환경대책이 강구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와 함께 주변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조기에 개설하고 각종 대형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광역 교통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경인 아라뱃길 건설과 관련하여 서구청에서는 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

주요 요구내용으로는 인천터미널 지역의 물류단지, 주운수로변의 친수공간 조성, 여가생활과 관련되는 마리나 시설, 계양구 경계 부근에 인공폭포 설치, 시천동 일원에 휴양형 주거타운 및 수변마을 조성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자전거도로, 산책로와 주운수로를 가로지르는 교량의 야간경관시설 설치에 대한 실시 설계 반영,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추가 건의한 바 있음.

따라서 문화·관광·레저 및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기능 경인 아라뱃길이 되도록 우리 구의 역할을 다할 것임.





구 재 용 의원

1.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공영차고지 설치계획 및 효율적인 주차차 단속방안은?

우리 구는 점차적으로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행이 증가하고 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 주차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경서3도 시개발구역의 화물터미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가격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0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또한 주차차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각종 단속에 대한 반발과 과태료 납부의 저조 등 단속만으로 주차차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불법 주차차 사전 예고제, 상습 민원 발생지역 밤샘주차 금지구역 지정, 부서 간 협조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 등 사업용 화물차 운송질서 확립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중 지상화 구간 지하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현재의 노선에 대한 의견은?

도시철도 2호선 우리 구 관내 19.2km 전구간이 당초 지상화로 계획되었던 것을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가좌 I.C부터 가정오거리까지 2.7km가 지중화로 변경된 것은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공촌사거리, 검암지구, 경인아라뱃길 등은 공항고속철도 고가도로 횡단 등과의 연계성 여부로 고가화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도 모두 지중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 구간마저 지중화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전 동시개통에 시기적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론지어짐에 따라 부득이 고가화로 확정, 지난 6월 26일 착공되었던 것임.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지상화 구간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을 고려하고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제16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결과

일 시	부 의 안 건	회 의 결 과
2009. 7. 20 (월) 11:00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불임 : 의안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불임 : 의안 1부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원안가결" - 불임 : 의안 1부
	4.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불임 : 의안 1부
	5. 석남1·3·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수정의견제시" - 불임 · 의안 1부 · 수정의견 1부.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불임 : 의안 1부
	7.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불임 : 의안 1부
	8.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불임 · 의안 1부 · 수정내역 1부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및 예방법



>>> 바이러스의 전파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함
- 계절인플루엔자는 비말감염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ex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 가까운 거리에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 비말은 공기 중에 퍼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2m 이내, 6 feet)로만 이동함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전파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구감염, 결막염 혹은 위장감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의 전파가 일반적임

>>> 잠복기

- 잠복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7일 사이로 추정되고 있음

>>> 임상증상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환자는 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를 보였음
- 미국에서 발생한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열(94%), 기침(92%), 그리고 인후통(66%)을 보였음

>>> 합병증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예전 돼지인플루엔자 (swine influenza) 환자를 보면 가벼운 호흡기질환에서 하기도증상, 탈수 혹은 폐렴, 급성호흡부전까지 증상을 보였으며 종종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

>>> 전염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염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추정된 전염기는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에 근거함.
- 감염된 사람은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이 소멸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을 것으로 봄(보통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어린이의 경우 특히 10일 이상 전염기를 가질 수 있음

* 예방 대책방법 *

1. 손으로 눈, 코, 입을 되도록 만지지 말 것.
2. 비누로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을 것.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티슈로 코와 입을 가릴 것.
4. 가능하면 인파가 많은 장소를 피할 것.
5.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킬 것.
6.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것. (적절한 수면과 휴식, 좋은 음식 섭취, 운동, 등산 등)

행복을 쫓는 사람들과 민우원의 행복...




교육지원 과장
석 승택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 온다면, “글쎄요, 음...” 솔직히 나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청소년기 시절을 빼고 나면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에 대해 깊은 생각도, 진지한 고민도 없었고 단지 주변사람들의 이야기거나 인생드라마의 시나리오 소재로만 여겼을 뿐이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슴으로 느껴본지 너무 오래고, 하루하루 빠듯한 삶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을 듯싶다.

며칠 전의 일이다. 한 노인이 골목골목 마다 돌며 파지(破紙)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았다. 무더운 날씨 탓도 있겠지만 깡마른 몸에 힘이 부치는지 손등의 주름살 사이로 굵은 핏줄과 땀방울이 튀어켜 파지위로 흘러내렸다. 리어카 위로 차곡 차곡 쌓아올린 종이 박스를 묶느라 연신 이마의 땀을 씻어내는 모습이 안쓰러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모아서 얼마를 버세요?”라고 물었다 “으응, 1킬로에 90원 받을 때도 있고, 100원 쳐줄 때도 있지...” 곰곰이 계산을 해 보니 30킬로그램 정도니까 3천원쯤 되는 모양이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한다면 하루 일당이 9천원 되는 셈이다.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노동의 대가 치고는 허무할 만큼 형편없는 수입에 할 말을 잃었고, 내 생각과는 달리 노인은 불평 없이 만족해하는 모습에 부끄러움마저 느껴졌다.



돈의 금액이 행복지수가 될 수는 없지만 소액(少額)이라도 마음에 넉넉함을 느끼는 노인이야말로 작은 행복을 품고 사는 게 아닐까.

그동안 행복이라는 울타리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이 안주(安住)하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 왔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면 결코 행복일 수가 없을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기준을 보면 ‘노후를 보장할 만큼의 재산, 최대 수명에 가까울 정도의 건강, 남에게 차지지 않는 평생의 아파트, 중후한 느낌의 승용차 등등’ 우리는 이러한 논리적인 행복론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몸과 마음마저 저당(抵當)잡힌 채 주위를 돌아볼 여유 없이 오로지 앞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인가.

얼마 전, 히말라야 13좌 등정에 성공한 여성 산악인의 인터뷰가 생각난다. “목숨을 건 산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마음이 앞서면 몸이 힘들다 마음이 한 박자 늦춰지면 몸이 편하다, 목표나 계획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다분히 힘든 역정에 불과하다”는 짧은 답변 속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배어있는 듯 하다.

행복은 쫓거나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느끼는 것이 아닐는지, 그리고 평안할 때 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신기루(蜃氣樓)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부터 쉽게 다가온다는 아이러니(irony)를 깨달아본다.

우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게 고맙고, 아침마다 커피 한잔 나누며 안부를 물어오는 동료의 기쁨이 있고, 얽혀버린 인생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이웃이 있어 마음이 풍요로운 것처럼 일상(日常)에서 행복의 손길을 선택하는 일은 바로 나 자신(自身)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찾아 나서야겠다.

범죄예방 CCTV 설치에 관한 의견

서구 가좌동 강 석 훈

어린이가 유괴되거나 납치돼 참혹하게 죽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를 공기총으로 잔혹하게 살해한뒤 산기슭에 버린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신문의 통계를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유괴사건은 무려 50건 넘게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이런 참혹한 죽음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학기 중에 초등학교 주변은 아이를 직접 데려다주려는 부모들로 부쩍 늘고 맞벌이 등으로 여의치 않는 가정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적잖다고 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늘 이렇게 불안하게 떨며 사는 우리 사회, 정말 이땅에서 유괴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물론 유괴범이 설치고 활개치는 한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한건이라도 덜 벌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유괴범죄를 막기 위해 인천 서구 관내 주요 도로변과 학원가, 놀이터 위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곳, 즉 학교 주변 골목길과 놀이터에는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방효과도 크고 사건 후 수사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작년에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도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나오는 유괴범이 감시카메라에 찍혀서 결정적 단서가 됐고, 역시 작년 가을에는 강남에서 강도짓을 한 범인이 가로등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찍혀 곧바로 검거한 적도 있었다.

서울과 같은 돈 많은 대도시에서는 CCTV가 많은데 지방은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여 다른 곳은 어려워도 우리 인천 서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모두 CCTV를 설치할 것을 건의 드린다.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간담회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검단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



신현고등학교 방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경인아라뱃길 건설현장 방문



'09년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회



제18기 서구문화대학 수료식



서구방법CCTV 관제센터 개소식



제18회 서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복지도시위원회 현장방문



게네시스 건국일보사 의정대상 시상식



기획총무위원회 제주도의회 비교시찰



서구의회 의원 인천시청 방문



문경도자기전시관 방문



희망근로 방범대 발대식



을지훈련 연습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개원식



가좌재정비 및 주공2단지 재건축 설명회



검단3동 주민센터 개청식



서구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송영우부의장 서구노인인적관리센터 방문



송영우부의장 의정활동 모범사례 발표

● 강성구 서구의회 의장 인천히딩크축구센터 기공식 참석



○ 강성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지난 6월 30일 서구 경서동에서 열린 인천히딩크축구센터 (Incheon Hiddink Soccer Center)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개최한 이 행사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신화를 이루어낸 거스 히딩크 축구 국가대표 전 감독과 안상수 인천시장, 안종복 인천 유나이티드 사장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천히딩크축구센터는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2011년부터 본격 활용될 전망으로 센터에는 천연잔디구장 4면, 인조잔디구장 1면, 시각장애인전용구장인 ‘드림필드’ 1면 등 모두 6개 구장과 함께 교육동, 숙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강성구 의장은 관계자들에게 히딩크축구센터는 2012년 인천 아시안 게임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공생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센터건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월출 서구의회 의원 “창세평화상” 의정대상



○ 고월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6월 15일 게네시스 건국일보, 게네시스 경인일보 주최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창세평화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제5대 서구의회 제1기 여성의장이었던 고월출 의

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활동, 관내 교통 및 주차문제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발전 조례를 마련하기도 하는 등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월출 의원은 서구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복지도시위원회 문경요 및 문경도자기전시관 방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전재안) 소속 전재안, 이종민, 민태원, 구재용, 박구의원은 지난 7월 29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에 소재한 문경요와 문경도자기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서구 지역 내 녹청자 문화 체험마을을 전통가마 설치 조성 계획에 따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문경 전통도예의 요람으로 일컬어지는 “문경요”에는 무형문화재 천한봉 명장이 문경의 전통가마 양식인 “망댕이 가마”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날 방문을 마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들은 녹청자 문화체험 마을이 서구지역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구의회 의원 현장방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8일 제 160회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인천 최초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신현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개방형 자율학교란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에게 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자리에서 최은아 학교장은 저비용, 고품질의 교

육회 제공을 위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강성구 의장은 특목고, 자사고에 버금가는 지역사회 중심학교로서 개방형 자율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 협조를 약속하였다.

이어 의원들은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검단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검단사업소장 및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오전 서구의회 의원들은 경인 아라뱃길 건설단을 방문하여 건설단장 및 사업총괄부장으로부터 경인 아라뱃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현장을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원기, 홍순목, 구재용 의원 등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착공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가시책사업이니 만큼 사업단이 지역주민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서구의회 의원 을지연습 상황실 격려 방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 중인 을지훈련 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을지연습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으로 1969년부터 을지연습으로 개칭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장의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올해의 경우 국제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이 요구되는 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연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송영우 부의장 국회사무처 주관 연수 서 사례발표



○ 인천시 서구의회 송영우 부의장이 지난 4일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개최된 '2009년 지방의원 연수(4차)' 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의회 등 47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의원연수에서 송 부의장은 사례발표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노인인적자원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설명했다.

이번 연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제도의 현안과 발전과제, 매니페스토 관리 전략, 조례 입안 및 심사에 이어 모범 사례 발표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5대 제2기 의원현황

의 장



강 성 구

(신현원창, 석남1,2,3동)

부 의 장



송 영 우

(신현원창, 석남1,2,3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원 기

(검단1,2,3,4동)

간 사



박 구

(가정1,2,3동)

위 원



홍 순 목

(검단1,2,3,4동)

위 원



구 재 용

(검암경서동, 연희동)

위 원



최 용 환

(신현원창, 석남1,2,3)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 동 주
(가좌1,2,3,4동)

간사



최 용 환
(신현원창, 석남1,2,3동)

위원



전 원 기
(검단1,2,3,4동)

위원



안 생 준
(가좌1,2,3,4동)

위원



김 영 옥
(비례대표)

위원



고 율 출
(비례대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전 재 안
(가정1,2,3동)

간사



구 재 용
(검암경서동, 연희동)

위원



이 중 민
(검단1,2,3,4동)

위원



홍 순 목
(검단1,2,3,4동)

위원



민 태 원
(검암경서동, 연희동)

위원



박 구
(가정1,2,3동)

위원



송 영 우
(신현원창, 석남1,2,3동)

입장권 예매방법

-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www.incheonfair.org), ☎ (032)440-8000(상담원예매)
- 기관예매: 영업기관코드(판매·추천자)입력 [서구청 기획홍보실(318001)]
- ☎ 예매대행: ☎ (032)560-5763 (서구청 도시축전지원팀), chiman@korea.kr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후 계좌입금: 매수(어른, 청소년, 어린이, 가족권 등 구분) 및 구매자 연락처 기재
-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5-198573 [인천 서구청(기획홍보실)]
- 입금 확인(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동일해야 함) 후 구매(매일 말)
- 입장권 수령(서구청기획홍보실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1달 이내)



단체할인권 조기에매 입장요금

대상	구분	예매요금		현장요금
		5.1~6.3	7.1~8.6	
학교, 기업 단체 등 30매 이상	어른	11,000	12,000	14,000
	청소년	8,000	9,000	11,000
	어린이	5,000	6,000	7,000

입장권 종류 및 요금체계

종류	구분	입장요금		적용범위	비고
		예매요금	현장요금		
보통 입장권	어른	15,000	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 만19~64세(대학생 이상) ■ 청소년: 만13~18세(중·고등학생) ■ 어린이: 만4~12세(유아·초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구분은 입장당일 기준
	청소년	11,000	13,000		
	어린이	8,000	10,000		
단체 할인권	어른	12,000	1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4급이하 장애인 ■ 현역군인(하사이하) 및 전·의경 ■ 국가유공자(1~3급상이군경) 및 3급이상 장애인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매불가 • 관련증명소지자 • 정복착용자
	청소년	9,000	11,000		
	어린이	6,000	7,000		
특별 할인권	어른	-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기간 동안 자유이용 ■ 출입증 형태로 제작 (사진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만 판매
	청소년	-	6,000		
	어린이	-	5,000		
전기간 통용권	어른	-	12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2명+청소년이하 2명 ■ 어른2명+청소년이하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매기간만 판매
	청소년	-	88,000		
	어린이	-	76,000		
가족권	4인기준	5.6월	7.1~8.6	-	-
		35,000	45,000		
가족권	3인기준	27,000	36,0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4세미만 - 부모동반 입장시만 적용(기관·시설의 단체입장시 적용제외) ■ 국가유공자 및 3급이상 장애인 ■ 단체인솔자 및 안내교사 - 30명당 1인 ■ 행사종사요원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가이드 또는 버스기사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 및 사실여부확인 	